



# Tongil Goup Newsletter

Tongil Group <http://www.tongilgroup.org/eng> Contact: [info@tongilgroup.com](mailto:info@tongilgroup.com) Copyright © Tongil Group All Rights Reserved



## True Parent's Recent Activities

### ✿ International Holy Blessing Ceremony of Unificationism was held successfully. - 3.3 by the heavenly calendar (March 24)

On March 24th, 5,200 couples International Holy Blessing Ceremony of Unificationism commenced successfully at the CheongShim Peace World Center, Gapyeong Gun, Gyeonggi Province in Korea. Approximately twenty thousand people, including 1,200 Newlywed couples and 4,000 couples re-affirming their marital vows, participated in this ceremony. True Parents officiated this Holy Blessing Ceremony, which commenced in the following order; wedding remarks by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invocation by distinguished religious leaders from various faiths, the Holy Water ceremony,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holy wedding by True Parents, exchanging wedding presents and the Holy wedding proclamation. With this proclamation, the brides and bridegrooms became one, centering on God and True Love,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n ideal family, the starting point of world peace and harmony.

Major news outlets from approximately 100 countries broadcasted this ceremony live. Media national outlets covering the Holy Blessing ceremony included KBS, Yeohap News, Seoul Economic News, Newsis, Segye Times, Sports World, CheonGi Times and Break News. International press included The Washington Times, BBC, Reuters, Chicago Tribune, ITN, The Telegraph, Mail Online, Scotland on Sunday, Euro News, Sky News, Daily Times and Yahoo! News.





🌿 **The 53rd True Parents' Day**  
- 3.1 by the Heavenly calendar (March 22)

On March 22, 2012, the 53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rue Parents' Day, one of the 8 central Unificationist Holy days, was held at CheonJeongGung Auditorium around 8:00 a.m.



🌿 **CheongShim Peace World Center Dedication Ceremony**  
- 3.1 by the heavenly calendar (March 22)



☘ WCSF 2012 Cain-Abel Wongu Peace Cup Cosmic Harmony Tournament

- 3.2 by the heavenly calendar (March 23)



**🌿 The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WFWP) 20th anniversary  
& Global Women's Peace Network Assembly**

- 3.4-6 by the heavenly calendar (March 25-27)

The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20th Anniversary and Global Women's Peace Network Assembly were held at Beachpalace, Moochangpo, Chungnam on March 26th, 2012. True Mother, International President of Unificationism Hyung Jin Moon and his wife, Tongil Foundation Chairman Kook Jin Moon and his wife, International Vice President of WFWP YeonAn Choi, Hoon Mo Nim, International President of WFWP NanYoong Moon, President of WFWP-USA Angelica Selle, President of WFWP-Japan Kuboki Detsuko and approximately 550 global female leaders participated in this event.

True Mother said, "I am deeply moved that WFWP celebrates the 2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since WFWP proclaimed the Global Women's Age in 1992. WFWP made a remarkable growth through its activities in the field of True Family Movement, Education for improving the status of women, Global conflict resolution and reconciliation movement. I am so glad and take pride in those kinds of achievements of WFWP."





☘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s Twitter ID: lovintp

twitter 

**lovintp** 문형진 이연아  
 동일교 목사 -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섬기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덮여있는 회개한 죄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 참부모님 억만세 진동수행자. 천복궁(동일교 세계본부): 서울시 용산구 3가 63-379  
<http://www.tongilgyo.org>

(March 31) Today's Hoondokhae; most people first criticize the faith before believing; however, true faith does not work this way. Faith is to believe first, behave accordingly and then reviews its results. Aju.

(April 2) Today's Hoondokhae: The way of good is to go forward during this life. Everybody knows what good is, but gives it up along the way because it is difficult. However, even though you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your life will be full of joy and happiness if you practice good behavior because good is connected with eternity.

\* News related with Blessing Ceremony

The Segye Times (Korea) : Unite as one with True Love; overcoming race and nationality

세계일보



24일 오전 11시에 열린 통일교 동양교 4천쌍 합동결혼식에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왼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오른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왼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오른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가림=연합뉴스 제공)

인종·국가 초월... 참사랑으로 하나 되다

동일교 5200쌍 국제합동 축배결혼식 거행

인종과 종교, 국가를 초월해 참사랑을 실천하는 근 5천쌍의 동양교 국제결혼 축배결혼식이 24일 오전 11시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통일교 4천쌍 합동결혼식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평지관영부도 송파종합운동장 개울사당 체육관에서 열린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왼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오른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가림=연합뉴스 제공)

분선명 총재 내외 동양대 하계 “참부부들의 성실한 행복 축일”

분선명 총재 내외 동양대 하계 “참부부들의 성실한 행복 축일”을 맞아 24일 오전 11시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통일교 4천쌍 합동결혼식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평지관영부도 송파종합운동장 개울사당 체육관에서 열린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왼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오른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가림=연합뉴스 제공)



24일 오전 11시에 열린 통일교 동양교 4천쌍 합동결혼식에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왼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오른쪽은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가림=연합뉴스 제공)

Seoul Economy : Unificationism: “4,000 couples mass wedding on 24th”

Yonhap News : Unificationism: 4,000 couples mass wedding

서울경제

연합뉴스

동일교 '24일 4,000쌍 합동결혼식'

입력시간: 2016.03.21 10:52:28



동일교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 시청문화회장에서 4,000쌍 국제합동 축배결혼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세계 각국에서 미혼 1천쌍, 기혼 3천쌍이 참가하며, 세계 100여 개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동일교는 합동결혼식이 열리는 청심문화센터에서 2천5,000여 규모의 국내 최대 문화회관이며, 오는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부

<종교소식> 통일교 4천쌍 합동결혼식

연합뉴스 기자입력 2016-03-21 09:25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통일교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 시청문화회장에서 4천쌍 국제합동 축배결혼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세계 각국에서 미혼 1천쌍, 기혼 3천쌍이 참가하며, 세계 100여 개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동일교는 합동결혼식이 열리는 청심문화회센터에서 2만5천석 규모의 국내 최대 문화회관이며, 오는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KBS NEWS : Unificationism: 1,200 couples international wedding**

The screenshot shows the KBS NEWS homepag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방송다시보기', '뉴스', '스포츠', '24시간 뉴스', 'VOD스파셜', '저테크', '건강·생활', and '연예·문화'. Below these are sub-categories like '전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정보·과학', '포토', '기자칼럼', '앵커룸', and 'HOT 이슈'.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headline: '동일교 천2백쌍 국제합동축복결혼식' (Interfaith 200 couples international wedding ceremony). The article text states: '통일교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오늘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천2백 쌍의 합동결혼식은 문선명 총재 내외의 주례로 진행됐고 예식사와 예물교환 그리고 성혼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The author is identified as '복창현 기자' (Reporter Bok Chang-hyun) and the date is '2012.03.24 (11:31)'.

**NEWSis.O : Rev. Sun Myung Moon: Invocation of the Blessing**

**NEWSis.( )**

**축도하는 문선명 총재**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4



【서울=뉴스시스】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창무모 승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문선명 총재, 한학자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가 신랑신부들에게 축도를 거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NEWSis.( )

## 성혼문답하는 문선명 총재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0



【서울=뉴스is】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삼부모 송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문선명 총재, 한학자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가 성혼문답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성수의식 갖는 신랑신부들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4



【서울=뉴스is】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삼부모 송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신랑신부들이 여식을 마친후 만세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Approximately 20,000 participants attended the international mass wedding ceremony. / 20,000 brides and bridegrooms give cheers of “Eog Mansei!” .

## 2만여명이 참석한 국제합동 결혼식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0



【서울=뉴스is】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삼부모 송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신랑신부들이 거도를 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만세 부르는 2만여명의 신혼부부들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0



【서울=뉴스is】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삼부모 송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신랑신부들이 여식을 마친후 만세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NEWSis.( )

## 축복속에 치러지는 2만여명의 결혼식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9



【서울=뉴스시스】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합부모 승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신랑신부들이 예식을 마친 뒤 기뻐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센터 가득 신혼부부들의 합성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9



【서울=뉴스시스】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합부모 승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신랑신부들이 합동예식을 마친 뒤 만세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20,000 brides and bridegrooms' mass wedding ceremony / Brides and bridegrooms smile.

### 신혼부부 2만여명 합동결혼식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4



【서울=뉴스시스】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합부모 승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신랑신부들이 합동예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환한 웃음의 신랑신부들

NEWSis.( ) 기사입력 2012-03-25 18:14



【서울=뉴스시스】 서재훈 기자 = 24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천지인합부모 승리해방완성개문시대 축복식에서 신랑신부들이 합동예식을 거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합동축복결혼식에는 총 2만여명이 참석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photo@newsis.com

# The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 Blessing Wedding ceremony, 5,200 couples, in Gapyeong

통일교 국제합동축복 결혼식, 5200쌍 기쁨으로

—세계일보 기자 최정호 기자 보도—

**NEWSis. ( )**



【서울=뉴스is】 김성환 기자 > 통일교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24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 경실봉화홀드센터에서 열렸다.

문선명(대) 총재와 한학자(96) 황교병(전) 선문학회 이사장 내외가 주례한다. 문항경(33) 통일교 서기회장의 예식사, 각 종단 대표의 축말, 상우의사와 상훈장단 수여, 결혼축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통일교에서 가장은 남성과 여성이 장시량을 영성으로 문화와 협업을 이루는 결합 세계의 가지이며 출발점이다. 따라서 축복 결혼식은 가정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통일교는 "축복결혼식의 핵심은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키켜진다는 사제(사)의 '복음교'에는 축복결혼식을 통해 종교, 인종, 국가를 초월해 사랑의 이상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교 축복결혼식은 1992년 한국에서 9만 5천여 쌍에 걸쳐 확대되었다. 이번 결혼식에는 세계에서 미혼자를 1200명, 거절자 400명 등 총 2000명이 참여한다. 가장 거창한 이력 결혼식이고 최고의 가정을 축복하는 통일교의 전통이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축복과 사랑을 공경해 축복결혼식에 참가하는 경우도, 소수지만 통일교 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번 결혼식에는 신부신부의 위해 총 2만여명이 참석한다. 통일교세가 강한 일본에서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 신부신부 400명 중 2500여명이 참석한다.

인간을 통해 1000여명에 상응해 한다. 무표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문화적 차이를 지니는 한국인이 이끄는 만큼 편지 행동과 분부에서 인공을 통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축복결혼식이 열리는 경실봉화홀드센터는 서울문화회관의 18만 2천 5000여㎡ 규모 국내 최대 규모 복합문화센터다. 결혼식에 맞춰 22일 개장한다.

scb@newsis.com

## SPORTS WORLD : Unite as one with True Love; overcoming race and nationality.

**SPORTS WORLD**



24일 경기 고양로 열린 경실봉화홀드센터에서 열린 '한지인합복교 승려(해)랑상제(해) 축복식'에 참가한 가부장 김성환(가운데)과 문선명(가운데)이 축복을 지어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흥=세계일보 김정호 기자

### 인종·국가 초월... 참사랑으로 하나 되다

문선명 총재 내외 등 2만 여명 "참부부들의 영원한 행복 축원"

#### 통일교 5200쌍 국제합동 축복결혼식

인종과 종교, 국가를 초월해 참사랑을 실현하는 큰 잔치인 통일교 국제합동 축복결혼식이 24일 경기 고양로 경실봉화홀드센터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번 '한지인합복교 승려(해)랑상제(해) 축복식'에 참석한 한국 미국 일본 아프리카 등에서 온 신부신부 5200쌍은 문선명·한학자 통일교 총재 내외의 축복과 축복을 가득 채운 2만여 명의 축하와 축에 참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5200쌍 가운데 1200쌍은 초혼으로 '미혼 축복'을, 4000쌍은 기존자로 '가정축복'을 받았다.

이번 축복식은 문항경 통일교 세계회장에게 헌정된 문항경·복희·예식사, 기독교·이슬람·불교·유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의 축복에 이어 성우의사, 문 총재 내외의 성문축복, 축도, 예불교원, 상훈장, 축사, 신부신부 인사, 이만세상장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항경 총재가 세계회장에게 헌정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하고 인간 지식을 넘어 문화 세계를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20년째 축복 행사를 주관한 문선명 총재는 상



24일 경기 고양로 열린 경실봉화홀드센터에서 열린 '한지인합복교 승려(해)랑상제(해) 축복식'에 참가한 김성환(가운데)과 문선명(가운데)이 축복을 지어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흥=세계일보 김정호 기자

문항경과 상훈축복에 앞서 열린 상우의사와 함께 참부부들을 신부신부 대표자들에 위시했다. 문선명(가운데)은 문 총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할 상수(상)를 성년(성)으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성정(성)을 나누고 참부부(상)에 약속(상)으로 '예'라고 맹세했다.

이번 축복식은 1940년에 단종(단)과 위상을 통해 지·간정(간)으로 성(성)계(계)의 영(영)으로 보(보)다 동(동)을 비롯(리)해 일(일), 신(신)교(교)의 영(영)을 배(배)워(워)라(라)다(다) 글(글)이 축(축)복(복)은 소(소)의 세계(계)에 전(전)대(대)도(도) 없다. 기흥=세계일보 김정호 기자

**The Cheonji Times : Unification Church; 5,200 couples attend the International Blessing Wedding ceremony.**

**천지일보**

**통일교 5200쌍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올릴다**

2012년 03월 25일 (월) 19:21 (KST) | 서울 | [news@cheonjitime.com](mailto:news@cheonjitime.com)

이름: 뉴스 | 분류: 세계동요

기사원문 | SNS | 댓글 | 태그 | 이미지 | 원문보기



▲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통일교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조선)

[천지일보=이길상 기자] 통일교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24일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다.

문선명 총재 내외의 주례로 거행된 이번 행사는 문선명 총재와 세계회장들의 예식사와 각 종단대표의 축원, 성수의식과 성총문답, 예불교향, 성총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통일교는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미혼 1200쌍, 기성가정 4000쌍 등 총 1만 4000여 명이 참석해 참가자를 만드는 위대한 출발에 동참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하객을 포함해 총 2만 명이 참석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생중계됐다.

**통일교 4000쌍 오는 2일 국제합동축복결혼식**

2012년 03월 24일 (월) 19:21 (KST) | 서울 | [news@cheonjitime.com](mailto:news@cheonjitime.com)



▲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통일교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위성 중계 100여 개국에 생중계**  
 통일교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4000쌍의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을 올릴다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선명 총재 내외의 주례로 거행되며, 문선명 총재와 세계회장들의 예식사와 각 종단대표의 축원, 성수의식과 성총문답, 예불교향, 성총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통일교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미혼 1200쌍, 기성가정 4000쌍 등 총 1만 4000여 명이 참석해 참가자를 만드는 위대한 출발에 동참했다"라고 전했다.

통일교는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미혼 1200쌍, 기성가정 4000쌍 등 총 1만 4000여 명이 참석해 참가자를 만드는 위대한 출발에 동참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하객을 포함해 총 2만 명이 참석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생중계됐다.



▲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통일교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하객을 포함해 총 2만 명이 참석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생중계됐다.

통일교는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미혼 1200쌍, 기성가정 4000쌍 등 총 1만 4000여 명이 참석해 참가자를 만드는 위대한 출발에 동참했다"라고 전했다.

**Break News : Unification Church; 4,000 couples attend the International Blessing Wedding ceremony.**

**BreakNews** 한국정권의 시대교체

**24일, 통일교 4,000쌍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위성중계를 통해 세계 100여 개국 동시 진행

통일교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 3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선명 총재 내외의 주례로 거행되며, 문선명 총재와 세계회장들의 예식사와 각 종단대표의 축원, 성수의식과 성총문답, 예불교향, 성총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통일교,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한 1995년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의 사진. (뉴스조선/이길상 기자)

통일교에서 가정을 양성하고 여성이 침사당을 중심으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평화세계의 기지마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축복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축복결혼식의 핵심은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서로 사랑하며 순결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통일교에서는 이러한 축복결혼식을 통해 종교와 인종, 국가를 초월해 할가정 이상을 만들어 간다.

통일교 축복결혼식은 1960년 한국에서 3쌍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할배 종교를 초월하여 전 세계의 종교지도자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해 회제가 되었으며, 또한 매년 많은 참가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미혼 1,000쌍, 기성가정 3,000쌍 등 총 8,000여 명이 참석해 할가정을 만드는 위대한 출발에 동참한다.



▲ 24일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청심평화월드센터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

이번 행사에는 하객을 포함해 총 2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생중계 된다. 축복결혼식이 열리는 청심평화월드센터는 세종문화회관의 8배 규모인 총 25,000석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문화센터로 오는 20일 개관할 예정이다.

Western Media

The Washington Times

BBC

REUTERS

Chicago Tribune  
*Breaking News, Since 1847*

ITN

The Telegraph

MailOnline

SCOTLAND on SUNDAY

euronews

sky NEWS

Daily Times  
*Your right to know. A new voice for a new Pakistan.*

YAHOO! NEWS

Reuters:

REUTERS

\* 영국 로이터 통신





**YAHOO News :**



**Unification Church faces change**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the Unification Church?  
 BBC News - Mar 24 04:24am

**Unification Church in South Korea has mass wedding of 2,500 marriages**  
 The huge event, with more than 15,000 spectators, was held at a church stadium in Gapsyong, 50 miles north-east of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Daily Mail - Mar 24 11:04am

**Thousands join Moon for mass wedding in South Korea**  
 SEOUL (Reuters) - About 2,500 couples from around the world exchanged or reaffirmed wedding vows at a South Korean stadium on Saturday and got a blessing from the foun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Reverend Sun Myung Moon. The 92-year-old Moon and his wife sprinkled "holy water" over a group of couples called onto the stage and declared them bound in wedlock. "This whole experience has been ..."  
 Reuters via Yahoo! News - Mar 24 05:01am



**Unification Church - News Images**



[29 News Images](#)

**Unification Church will hold seminars, not build boats near airport**  
 Plans to build factory producing helium-filled boats didn't pan out for the business arm of the Unification Church, instead the organization led by the Rev. Sun Myung Moon plans a convention center and dormitory at its location near McCarran International Airport.  
 Las Vegas Sun - Mar 06 03:22pm

**2,500 Moonie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marry in mass South Korea wedding ceremony**  
 The huge event, with more than 15,000 spectators, was held at a church stadium in Gapsyong, 50 miles north-east of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Daily Mail - Mar 24 10:05am

**Observing the Faiths: March 23**  
 PASADENA - Lake Avenue Church will host Easter-week events on Palm Sunday, Good Friday, and Easter Day.  
 Pasadena Star-News - Mar 22 11:16pm

**Mass wedding unites 3,000 couples**  
 More than 3,000 couples have tied the knot at a mass wedding in South Korea.  
 DigPoint News - Mar 25 09:54am

Google:



### Mass wedding unites 3000 couples

Silly News Australia - 10 hours ago

Mass wedding unites 3000 couples Updated: 03:33, Monday March 26, 2012 More than 3000 couples have tied the knot at a mass wedding in South Korea. Most participants were renewing their vows, while around 1000 were getting hitched for the first time.

### 2000 couples take part in mass wedding in S Korea

Pakistan Daily Times - Mar 24, 2012

South Korea's Unification Church holds a mass wedding and holy blessing for 2000 couples from 54 countries. More than 20000 church followers gathered for the ceremony at a stadium in Gapyeong, 47 miles northeast of Seoul. The Telegraph reports

### Thousands join Moon for mass wedding in South Korea

Chicago Tribune - Mar 24, 2012

SEOUL (Reuters) - About 2500 couples from around the world exchanged or reaffirmed wedding vows at a South Korean stadium on Saturday and got a blessing from the foun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Reverend Sun Myung Moon. The 92-year-old Moon and his ...

### 2500 marriages made in Moonie heaven: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tie ...

Daily Mail - Mar 24, 2012

By Damien Gayle Some 2500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were today married at a mass wedding ceremony held by the controversial Unification Church. The huge event, with more than 15000 spectators, was held at a church stadium in Gapyeong. ...

### Moon's rising son spells change for the Unification Church

BBC News - Mar 24, 2012

By Robert Pigott Religious affairs correspondent, BBC News When Simon Cooper married his Japanese wife Cheiko 18 years ago it was a match made, if not in heaven, at least by the Reverend Sun Myung Moon. In those days the Rev Moon "matched" thousands of ...

### Over 5000 couples marry in mass ceremony

ITN - Mar 24, 2012

A controversial church has held a mass wedding in South Korea, uniting over 5200 couples in matrimony, or reaffirming their vows. Over 2000 couples and 20000 spectators crammed into a sports stadium in Gapyeong, 47 miles northeast of Seoul. ...

### Couples from 50 countries give vows

Washington Times - 4 hours ago

By THE WASHINGTON TIMES An estimated 2500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exchanged or reaffirmed wedding vows Saturday in a Unification Church ceremony held before more than 15000 spectators in a stadium in Gapyeong, South Korea.

### 2500 couples join stadium wedding

Scotland on Sunday - Mar 24, 2012

SOUTH KOREA. About 2500 couples from around the world exchanged or reaffirmed wedding vows at a South Korean stadium yesterday and received a blessing from the foun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Reverend Sun Myung Moon. Moon, 92, and his wife sprinkled ...

Chicago Tribune :

\* 미국 시카고 트리뷴

## Chicago Tribune Thousands join Moon for mass wedding in South Korea

Breaking News. Since 1847

SEOUL (Reuters) - About 2,500 couples from around the world exchanged or reaffirmed wedding vows at a South Korean stadium on Saturday and got a blessing from the foun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Reverend Sun Myung Moon.

The 92-year-old Moon and his wife sprinkled "holy water" over a group of couples called onto the stage and declared them bound in wedlock.

#### Related

Thousands join Moon for mass wedding in South Korea



Newlyweds celebrate during a mass wedding ceremony of the Unification Church in Gapyeong

"This whole experience has been absolutely amazing. I mean really, really happy," said Chouchane Saemie, a bridegroom from Britain.

A church spokesman said that in addition to the 2,500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at the ceremony at a church stadium in Gapyeong, 75 km (50 miles) from Seoul, another 2,700 couples joined in via the Internet.

More than 15,000 followers and guests gathered at the stadium for the ceremony, he said.



South Korean evangelist Reverend Moon Sun-myung and his wife Han Hak-ja attend a mass wedding ceremony of the Unification Church in Gapyeong

"The mass wedding leads all mankind to be one, removing the boundaries of ethnicities, religions and nationalities," said senior South Korean church official Seuk Joon-ho.

"Our goal is making the world peaceful with forming new families."

The brides wore white and the bridegrooms tuxedos.

Moon founded the church, officially called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1954 and declared in 1992 that he and his wife were messiahs. The church considers the Korean peninsula sacred.

He has presided over mass weddings since the early 1960s.

One of Moon's sons, Hyung Jin, has taken over the day-to-day leadership of the church which has 5 million to 7 million followers around the world.

Critics have vilified the group as heretical and a dangerous personality cult, questioning its murky finances and accusing it of indoctrinating followers. The church denies that.

(Reporting by Sung-won Shim and Reuters TV; Editing by Robert Birsel)



**The Washington Times :**

\* 미국 워싱턴 타임즈

**The Washington Times**

**Couples from 50 countries give vows**

By THE WASHINGTON TIMES      Sunday, March 25, 2012

An estimated 2,500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exchanged or reaffirmed wedding vows Saturday in a Unification Church ceremony held before more than 15,000 spectators in a stadium in Gopyeong, South Korea.

The church's founder, the Rev. Sun Myung Moon, and his wife, Hak Ja Han Moon, presided over the event, blessing the couples in the stadium, about 50 miles northeast of Seoul. Thousands more participated over the Internet and in ceremon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40 couples in Washington, a church spokesman said.

In the Unification Church tradition, known as the "Marriage Blessing," or simply the "Blessing," many married couples rededicate their vows alongside the newly married.

Unification Church ministers estimated that 165 people from the United States whose parents had been matched and married by Rev. Moon took part in Saturday's event.

"This whole experience has been absolutely amazing. I mean really, really happy," Chouchane Saemie of Britain told the Reuters news agency.

"The mass wedding leads all mankind to be one, removing the boundaries of ethnicities, religious and nationalities," senior South Korean church official Seuk Joon-ho told the news service. "Our goal is making the world peaceful with forming new families."

Rev. Moon, 92, founded the church, officially called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1954.

He also started The Washington Times. The newspaper today is owned and operated by a five-member board affiliated with the Unification Church.

The Washington couples joined in the ceremonies with a banquet at the Unification Church of Washington, hosted by the Rev. Zogory Okver, the church's pastor, and his wife, Fumi.

Other couples participating in the event were from New York and from San Leandro and Pasadena, Calif.

**BBC:**

\* 영국 BBC



**Features & Analysis**

**'I'd love to drag up'**  
Christopher Eccleston on acting and unimpaired amnesia

**After Moon**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the Unification Church?

**In pictures**  
Spring sunshine - with more to come

**Crash landing**  
I fell two miles from a plane and survived

**Most Popular**

Shared    Read    Video/Audio

- 1 M5 coach crash driver is arrested
- 2 Tsunami ship drifting off Canada
- 3 Images arrest of cliff death man
- 4 Queen's wedding visit 'best gift'
- 5 How I survived a plane crash
- 6 Bolton plan Muamba mosaic tribute
- 7 Australia extinction 'due to man'
- 8 French police quiz Merah brother
- 9 **Unification Church faces change**
- 10 Six charged over child sex trade

24 March 2012 Last updated at 11:17

# Moon's rising son spells change for the Unification Church



By Robert Piddot  
 Religious affairs correspondent, BBC News

When Simon Cooper married his Japanese wife Cheiko 18 years ago it was a match made, if not in heaven, at least by the Reverend Sun Myung Moon.

In those days the Rev Moon "matched" thousands of young people for the kind of mass weddings the Unification Church he founded is celebrating on Saturday in South Korea.

He occupies the position of a messiah for the church, with his account of having been visited as a teenager by Jesus, who told him that God wanted him to restore his kingdom on earth.

Mr and Mrs Cooper now have five children, and he has been made a pastor in the church, and chief executive of its British headquarters in London.

"It was pouring with rain but it was surprisingly a very romantic and also spiritual experience, and I remember standing there with Cheiko and it feeling incredibly intimate," he recalls of the mass wedding in 1995.

That was despite the tens of thousands of other couples, either getting married for the first time or renewing their vows in the presence of the Rev Moon.

Video footage from the era of the Coopers' wedding shows the Rev Moon, and his wife Hak Ja Han, dressed in white robes and wearing crowns, at the centre of the ceremony.

The couple - known by many in the Unification Church as "the true spiritual parents of humankind" - witness the vows called out in a great roar by the ranks of brides and grooms.

Members of the church - many dislike the term "Moonies" - say the success of those marriages speaks for itself.



Simon Cooper and his Japanese wife Cheiko were matched by Reverend Moon

### Related Stories

**'Moonies' null future without founder**  
 In pictures: Moonies' mass wedding

### WHAT DO THEY BELIEVE IN?

- At the age of 15 Reverend Moon was "called by God to fulfil the mission of Jesus, which had been left unfulfilled due to Jesus' crucifixion"
- Part of that mission was to establish a "God-centered ideal family"
- Everyone must undergo a blessing ceremony in order to "release themselves of the original sin, which has been passed down throughout the millennia"
- They describe God as their "vertical True Parent" and Reverend and Mrs Moon as "horizontal True Parents"

Experts in new religious movements, such as Dr George Chryssides, an honorary research fellow at Birmingham University, have monitored what he regards as experimentation in the church as it loosens the apron strings connecting it to the founder.

"The Unification Church has been very volatile. They keep trying out new ideas and changing, and it's often difficult to see which way it's going," he said.

Dr Chryssides believes the changes have so far failed to establish a firm footing for any transition to life after Moon, partly because of divisions in the family over the future of its considerable business portfolio.

He says: "Moon is trying to hold things together as best he can but there are legal battles going on for control of the organisation... the various properties that Moon has an interest in,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religious movements, the person who gets the assets is key to how the organisation develops."



Mr Cooper and his wife now have five children

Mr Cooper acknowledged that the rift between two of the Rev Moon's sons is a problem for the church, and it needs to be resolved before he dies.

"It's good that these disagreements and these family conflicts got sorted out or reached while he is still alive because it creates a much stronger potential for how things will develop after he passes away," he says.

One thing that is likely to continue, at least for a time, are the mass weddings, with their white and black sea of brides and grooms.

Marriage remains central in a theology which emphasises family values, and which holds that only the married can achieve ultimate salvation.

One of the church's aims is to unit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t is likely to continue joining couples from opposite sides of the world.

Also, as Mr Piddot explains, the wedding "the only real kind of sacrament (ritual) God in people's lives, the only real kind of big event that we have together as a community".

Mr Cooper, one of the Unification Church's pastors, presides over services in Lancaster, an informal, evangelical, feel.

A band of three 20-somethings leads the service and there are prayers for the "true parents" and for the blessing ceremony in Korea.

Speaking at a lectern, near a photograph of the Rev Moon and his wife, Mr Cooper preaches a sermon about "making the best use of time".

speaks for itself

The figures are hard to assess, but the British branch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claims a divorce rate far lower than the population at large.

Mr Cooper describes how his family were initially "not particularly keen" on the prospect of the Rev Moon matching him with a woman he had met only once.



Mass weddings are central to the church, which sees marriage as an essential part of life

But Mr Cooper, like other couples, had faith in the leader's wisdom.

These days couples are more likely to be introduced by their respective families, and the Rev Moon's role is a little less pivotal.

Daniel Piddot, a 22-year-old student from Kent University, is in Korea to marry Dawn, the American found for him by his parents.

The couple have met only three times before their wedding, but they have spent hours in daily conversations on Skype.

Mr Piddot says the church has been encouraging, and is less dependent on the 92-year-old Rev Moon.

"He's quite an inspirational figure but ultimately it's down to what I believe, and that won't change if he passes away... I feel it's already kind of been adapting to the times," says Mr Piddot.

Changing times have seen members of the church continuing to appeal to Rev Moon for spiritual and practical guidance, but the leader himself increasingly refers to the church's traditions.

These are partly expressed in the book called "Divine Principle", which contains the revelations received by Rev Moon, and forms the basis of Unification theology.

Another development has been the increased influence of Rev Moon's younger son, Hyung Jin Moon - selected by him a few years ago to take over the spiritual leadership of the church.



Daniel Piddot's parents found his American bride, Dawn, for him

Mr Cooper says Hyung Jin Moon, who studied at Harvard, practised Buddhism and lived for a time in a Roman Catholic monastery, is having an effect on congregations in the UK.

"He was doing things that maybe hadn't been done in services before, such as encouraging people to go over to another person and give them a hug. He was bringing his own flavour to the worship culture, and that said to a lot of people 'why don't we all try to do things to develop our worship culture, and not just do things as they've always been done'," he said.

Factors in new religious movements, such as Dr George Chryssides, an

Mr Cooper, one of the Unification Church's new breed of younger pastors, presides over services in Lancaster Gate in London which have an informal, evangelical, feel.

A band of three 20-somethings leads the congregation in worship songs, and there are prayers for the "true parents" and for the blessing ceremony in Korea.

Speaking at a lectern, near a photograph of the Rev Moon and his wife, Mr Cooper preaches a sermon about making the best use of time.

"God has plans for us but we have to do our share to make them come about," he tells the congregation.

But as, over time, the true parents fade from the scene, unificationists cannot be sure where those plans will take their church.

### More on This Story

#### Related Stories

**'Moonies' null future without founder** 08 OCTOBER 2005, ASA-PACIFIC  
 In pictures: Moonies' mass wedding 13 FEBRUARY 2005, ASA-PACIFIC

#### Related Internet links

The Divine Principle (Unification Church)

The Unification Church: the content of external internet sites

#### Share this page

Print Email Facebook Twitter

## Related Internet links

**The Divine Principle (Unification Church)**

The BBC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xternal Internet sites

Mail Online(United Kingdom) :

\* 영국 메일 온라인

MailOnline

2,500 marriages made in Moonie heaven: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tie the knot in mass South Korea ceremony

By DAWN GAYLE  
PUBLISHED: 18:21 GMT, 24 March 2012 | UPDATED: 17:47 GMT, 24 March 2012  
Comments (16) | Share | 1 | Tweet | Like (7)

Some 2,500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were today married at a mass wedding ceremony held by the controversial Unification Church. The huge event, with more than 15,000 spectators, was held at a church stadium in Gapyeong, 50 miles north-east of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The sect's 92-year-old founder, Reverend Sun Myung Moon, and his wife sprinkled 'holy water' over a group of couples called onto the stage and declared them bound in wedlock.



Marriage: Newlyweds celebrate during a mass wedding ceremony of 2,500 couples held by the Unification Church in Gapyeong, about 57 miles north-east of Seoul, earlier today



Messiah: Reverend Moon Sun-myung and his wife Ha Hee-jin sprinkled 'holy water' over a group of couples called onto the stage and declared them bound in wedlock. Moon founded the church, officially called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1954. In 1992 he declared that he and his wife were messiahs. He has presided over mass weddings since the early 1960s. One of Moon's sons, Hyung-jin, has taken over the day-to-day leadership of the church which has attention to 70 million followers around the world. The Unification Church, whose followers are often derogatorily dubbed 'Moonies' after the name of its founder, considers the Korean peninsula sacred. Critics have vilified the group as heretical and a dangerous personality cult, questioning its murky finances and accusing it of indoctrinating followers. The church denies that.

Sky News (Australia) :

Scotland on Sunday (United Kingdom) :

\* 호주 스카이뉴스

Mass wedding unites 3,000 couples

Updated: 03:33, Monday March 26, 2012

sky NEWS



More than 3,000 couples have tied the knot at a mass wedding in South Korea. Most participants were renewing their vows, while around 1,000 were getting hitched for the first time. They were married by the founder and lea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Reverend Moon Sun-myung - a self-proclaimed messiah.

\* 영국

스코틀랜드 온 선데이

SCOTLAND ON SUNDAY

2,500 couples join stadium wedding

Published on Sunday 25 March 2012 00:00

**SOUTH KOREA:** About 2,500 couples from around the world exchanged or reaffirmed wedding vows at a South Korean stadium yesterday and received a blessing from the foun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Reverend Sun Myung Moon.

Moon, 92, and his wife sprinkled "holy water" over a group of couples and declared them bound in wedlock. Another 2,700 couples joined in the event via the internet.

## ITN (United Kingdom) :

\* 영국 ITN



Last update: Sat Mar 24 2012 17:34

LATEST HEADLINES

Frazier Campbell's shock England call-up

HOME UK WORLD ENTERTAINMENT AND FINALLY



Over 5,000 couples marry in mass ceremony

Sat Mar 24 2012 11:08

You are watching

The Unification Church holds a mass wedding with 2,000 couples and 20,000 spectators in South Korea.

Duration: 00 m 45 s

## Telegraph (United Kingdom) :

\* 영국 텔레그래프

Saturday 24 March 2012

Log in | Register | Subscribe

# The Telegraph

Search - enhanced by Google

HOME NEWS SPORT FINANCE COMMENT BLOGS CULTURE TRAVEL LIFESTYLE FASHION TECH Dating Offers Jobs  
UK World Politics Obituaries Education Earth Science Defence Health News Royal Family Celebrities Weird News

HOME » NEWS » NEWS TOPICS » HOW ABOUT THAT?

## Two thousand couples take part in mass wedding in South Korea

South Korea's Unification Church holds a mass wedding and holy blessing for 2,000 couples from 54 countries.



RELATED VIDEO



Thousands take part in mass wedding

24 Mar 2012



Borat spoof anthem mistake

23 Mar 2012



Giant deckchair on Bournemouth beach

23 Mar 2012

WATCH MORE



## YAHOO NEWS (U.S.A.) :

\* 미국 야후뉴스

YAHOO! NEWS

### Thousands join Moon for mass wedding in South Korea

REUTERS - Reuters - Sat, Mar 24, 2012

Like Email Recommend Tweet Share Print

#### RELATED CONTENT



Wedding couples celebrate during a mass wedding ceremony in Seoul, South Korea, Saturday, March 24, 2012. (AP/Wide World Photos)



A church spokesman speaks during a mass wedding ceremony in Seoul, South Korea, Saturday, March 24, 2012. (AP/Wide World Photos)

#### VIEW SLIDESHOWS



Churchgoers at a mass wedding ceremony in Seoul, South Korea, Saturday, March 24, 2012. (AP/Wide World Photos)



A bride and groom at a mass wedding ceremony in Seoul, South Korea, Saturday, March 24, 2012. (AP/Wide World Photos)

See latest photos >

SEOUL (Reuters) - About 2,500 couples from around the world exchanged or reaffirmed wedding vows at a South Korean stadium on Saturday and got a blessing from the foun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Reverend Sun Myung Moon.

The 92-year-old Moon and his wife sprinkled "blessing water" over a group of couples called onto the stage and declared them bound in wedlock.

"This whole experience has been absolutely amazing. I mean really, really happy," said [Chouchane Saemis](#), a bridegroom from Britain.

A church spokesman said that in addition to the 2,500 couple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at the ceremony at a church stadium in Gapsyong, 75 km (50 miles) from Seoul, another 2,700 couples joined in via the Internet.

More than 15,000 followers and guests gathered at the stadium for the ceremony, he said.

"The mass wedding leads all mankind to be one, removing the boundaries of ethnicities, religions and nationalities," said senior South Korean church official [Seuk Joon-ho](#).

"Our goal is making the world peaceful with forming new families."

The brides wore white and the bridegrooms tuxedos.

Moon founded the church, officially called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1954 and declared in 1992 that he and his wife were messiahs. The church considers the Korean peninsula sacred.

He has presided over mass weddings since the early 1960s.

One of Moon's sons, [Hyung Jin](#), has taken over the day-to-day leadership of the church which has 3 million to 7 million followers around the world.

Critics have vilified the group as heretical and a dangerous personality cult, questioning its murky finances and accusing it of indoctrinating followers. The church denies that.

(Recreation by Suno-won Shim and Reuters TV; Editing by Robert Bissell)

## EURO NEWS:

NEWS BUSINESS SPORT CULTURE NO COMMENT EUROPEAN AFFAIRS

Africa Americas Asia Europe Middle East

euronews English 20/03/2012

[home](#) [no comment](#) [Mass wedding in Seoul](#)

### Mass wedding in Seoul

2012-03-24 10:56 CEST

Facebook Tweet Print Share

5 4 3 2 1 0

Current Rating: 4.2

The Unification Church held a mass wedding and holy blessing in South Korea on March 24, with 2,000 couples from 54 countries participating.



**SPORTS WORLD:**

CheongShim Group; opening of the CeongShim Peace World Center

Beginning the cultural climate for contributing to world peace by "overcoming nationality and religion".



청심그룹 '청심평화월드센터' 개관

**‘국가·종교 초월’ 세계 평화 기여할 문화공간 열렸다**

최대규모 2만5000석- 세계문화회관의 8배  
 단선형 총재 "인류 대가족이 평화 체험할 공간"

인종과 국가, 종교를 초월한 평화세계를 열람하는 문화·예술의 집합체 "청심평화월드센터"가 평화월드센터가 22일 경기도 가평에서 개관했다.

기쁨을 순식간에 쏟아낸 자이언트 "월드센터"는 지면 1층-지상 4층, 연면적 20만2000㎡ 규모로, 서울 세종로 평화광장에 8배인 255000㎡를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문화예술공간이다.

통일교 신아 글로벌 평화교육 기지인 청심그룹이 설립해 운영하 는 "월드센터"는 2006년 10월 25일 기공식 이후 3년 5개월 만에 그 웅 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개관식에는 청심그룹 회장인 총재, 한국과 세계문화대사관장 총재, 외국인 통일교를 필두로, 동양권 통일교 세계회장, 김연수 세계 일본 및 스포츠월드 회장, 통일교 유니세프한국본부 단장 등이 참석했다. 독일, 일본, 미국, 베트남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온 2천여 명의 인사

가 "월드센터"를 가득 채웠다.

총재는 "인도 가족들의 문화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면서 "가득은 문화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한 총재는 "평화 세계를 다양한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종교,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 수많은 단체를 후원했다"며 "청심평화월드센터가 그런 뜻이 담긴 공간"이라고 말했다.

개관 축하식에는 통일교 세계 총재가 내린 "국제문화교육총재" "문화교육을 통한 평화"라는 말을 제각각이 차용했고, 세계 곳곳에서 모인 관객들을 위한 축하공연도 열렸다.

이날 순회공연에 참가한 문화사범들은 전통예술을 소개하는 공연이 이어 유서깊은 "평화의 연가" 등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객들에게 선보 이며 개관의 활기를 채기 시작했다.

현재 인기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이 2012년 12월 22일 22일 개관 축하공연으로 열릴 예정인 "월드센터"를 축하하는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22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 개관 축하를 비롯한 주요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문화사범들이 전통 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개관 축하식에는 통일교 세계 총재, 한국과 세계문화대사관장 총재, 외국인 통일교를 필두로, 동양권 통일교 세계회장, 김연수 세계 일본 및 스포츠월드 회장, 통일교 유니세프한국본부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순회공연에 참가한 문화사범들은 전통예술을 소개하는 공연이 이어 유서깊은 "평화의 연가" 등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객들에게 선보 이며 개관의 활기를 채기 시작했다.

현재 인기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이 2012년 12월 22일 22일 개관 축하공연으로 열릴 예정인 "월드센터"를 축하하는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가평 월드컵 가평은 청심평화월드센터, 청심국제 스포츠월드 센터, 평화월드센터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이 열리고 있다. 통일교 세계문화대사관장 총재, 한국과 세계문화대사관장 총재, 외국인 통일교를 필두로, 동양권 통일교 세계회장, 김연수 세계 일본 및 스포츠월드 회장, 통일교 유니세프한국본부 단장 등이 참석했다.

\* News related WCSF 2012 Cain-Abel Wongu Peace Cup Cosmic Harmony Tournament  
 The Segye Times (Korea) : Cain-Abel Wongu Peace Cup Cosmic Harmony Tournament

**세계일보**



가인·아벨 원구 피스킵 친주연합대회

23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2 세계문화대사관(WCSF) 가인·아벨 원구 피스킵 친주연합대회에서 일본 건흥무용단이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위 사진) 인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인 세계문화대사관 개막식에 참석한 문명진 통일교 세계회장, 문선영·한학지 총재 내외, 문근진 통일교 회장(왼쪽부터)이 역전세 상경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 대학생 5000여명이 스포츠를 통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대화의 한마당을 펼쳤으며 평화시대의 개문(개막)을 알렸다.



※ Please visit the Tongil Group homepage at [www.tongilgroup.org/eng](http://www.tongilgroup.org/eng). Thank you.  
 Facebook: Tongil Foundation

